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 고산스님 지음

올바른 삶과 수행자의 길은...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이 새 천년을 앞두고 그동안 수행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문경새재 펴냄)을 내놓았다. 이 책은 고승의 작별에 대한 선문답을 비롯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 젊은 날 사랑에 대한 이야기, 통장군의 가르침으로부터 수행자와 창녀 이야기를 비롯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경전에 대한 스님의 해석 등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고산스님의 첫번째 수필집인 이 책은 경전의 어려움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었다 뿐 아니라 스님의 직박한 삶이 잘 드러나 있다. 값 7천5백원



헤르만 헤세의 인도기행 이인용·백인옥 역

동양정신 소개한 아시아 여행기



한 저자의 자성과 비판의 소리를 담고 있다. 2부는 부처님의 설법, 힌두교 등 지혜와 사상에 대한 견해를 실었다. 값 1만5천원.

방랑과 사색의 작가 헤르만 헤세가 동아시아를 여행하고 쓴 <헤르만 헤세의 인도기행>(푸른숲 펴냄)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저자가 1911년 9월부터 3개월간 실론을 거쳐 말레이반도, 수마트라를 둘러본 여행의 궤적을 담고 있다. 이인용·백인옥씨가 번역한 이 책은 지리적 여행기인 '헤세의 인도여행'과 정신적 여행기인 '여행후의 기록들'로 구성. 1부는 동남아시아의 경제와 문화가 유럽식민통치에 유린, 착취, 말살되는 모습을 체험한 저자의 자성과 비판의 소리를 담고 있다. 2부는 부처님의 설법, 힌두교 등 지혜와 사상에 대한 견해를 실었다. 값 1만5천원.

부처님, 제발 용서하십시오 합재수 지음

인간의 40가지 죄 참회수상집



많은 지을 수 있는 마흔 가지의 죄목과 형벌을 조목조목 살펴하고 있다. 값 9천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업장과 과거·현재·미래 삼세에 지을 수 있는 마흔 가지 죄 이야기를 적은 참회수상집이 나왔다. 합재수씨가 쓴 <부처님 제발 용서하십시오>(관음 펴냄)는 이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업을 스스로 뉘우치고 부처님 회상(會上)에 나가 참회하라고 강조한다. 모두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하늘이 슬퍼할 열가지 죄, 저주받을 열 열가지 죄, 용서받지 못할 열가지 죄, 개도 용서 못할 열가지 죄 등 인간이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마흔 가지의 죄목과 형벌을 조목조목 살펴하고 있다. 값 9천원.

새로나온 책



유물이라는 화두를 통해 우리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고려불화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에서는 고려불화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고, '무신정권이 한국불교의 일대 전환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에서는 현대 한국불교의 원류가 된 송광사와 조계종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유물로 읽는 우리 역사(이덕일·이희근 지음)= 모든 유물들은 저마다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다.

고대, 고려, 조선, 현대 등 시대별로 모두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유물에 담겨 있는 비밀 푸는 열쇠인 셈이다. 세종서적 펴냄. 값 1만원.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좋은벗들 엮음)=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보고서. 이 책은 '식량난민의 현황과 실태' '국경을 넘는 북한사람들의 절망과 희망' 등 모두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중국 동북부지역 2천4백79곳 마을 현지 조사에 기초한 보고서이다. 2부는 현지 활동가들이 만난 거리의 아이들 즉 '꽃비둘기의 노래'를 실고 있다. 또 부록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동북 3성 조사지역의 탈북유민 실태분석도 수록했다.

(사)좋은벗들이 지난 96년 11월부터 99년 4월까지 5개월동안 872명의 북한 식량난민을 만나 그들이 증언한 인권 침해사태를 적고 있다. 값 8천원.

▲나몸에 흐르는 기를 찾아서(전수길 지음)= 대체 의학에 대한 연구 보고서이자 기 치료 입문서. 이 책은 배꼽링 기구를 통해 몸안의 기를 증폭시키는 좀더 발전된 대체 의학에 대한 연구보고서이자 기와 치료를 쉽게 이해하는 입문서라는 독특한 성격으로 쓰여졌다. 모두 8부로 구성된 이 책은 몸안에 내기를 증폭시키는 획기적인 기 치료방법과 배꼽링 요법의 사례 등이 실려 있다. 입문서에서는 생활의 기를, 2부는 16기맥을, 3부는 배꼽링 요법의 구조와 원리를, 4·5부는 기로 이해하는 육장육부와 그 진단법이다. 6·7부는 배꼽링 요법을 이용한 치료 등을 적고 있다. 명상 펴냄. 값 1만2천원.



짧은 이야기 긴 깨달음

진현중씨, 대장경속 동물이야기등 두권 펴내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동물과 깨달음 이야기를 주제별로 엮은 두 권의 신간이 동시에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진현중씨가 펴낸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동물이야기>와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보리이야기>(혜음 펴냄)가 바로 화제의 책.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동물이야기>는 동물을 소재로 하는 우화들을 찾아내 현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코끼리, 사자, 원숭이, 사슴 등 여러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고 있지 못했던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재미있게 깨우쳐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눈을 통해서 인간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보리이야기>는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통해 깨달음의 실마리, 즉 보리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짧은 이야기들을 골라 실었다. 또 이 책의 말미에는 인용된 설화들에 대한 주요 경전에 대한 해설이 풀여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팔만대장경에 관심이 있거나 팔만대장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들은 동물에 얽힌 재미있는 우화를 통해 생활에서 통달하지 않은 삶의 지혜를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 느낄 수 있게 한다. 값 각각 7천8백원.

법정스님 '무소유' 25년동안 80만부 판매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나무 한그루 베어 내어 아깝지 않은 책이다." 김수환 추기경과 윤구병 변산공동체 대표는 법정스님의 수필집 <무소유>(법우사 펴냄)를 이렇게 평했다.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책으로 단연 <무소유>를 빼놓을 수 없다. 76년 4월 처음 출간된 후 지금까지 이 책을 소유한 독자는 약 80만명. 문고본으로 초반 16쇄, 2판 63쇄를 찍을 정도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한번씩 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히 이 책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돈'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 더 잘 팔리는 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윤형두 법우사 대표는 "꾸준히 판매되고 있지만 경제가 어렵거나 금전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대두될 때 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며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고 부처님께서 염원하는 정토사회가 이뤄질 때 이 책은 사문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고본 <무소유>(값 2천원)가 최근 4X6배 변형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개정판이 나오게 된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법정스님의 남다른 애정이 큰 몫을 했다. 기존 문고본은 한자와



청소년 읽기 쉽게 개정판 나와

"사회 혼란할 때 더 잘 팔리는 책"



◇무소유의 의미를 김동진에게 노래한 법정스님의 대표작 <무소유>가 새롭게 출간됐다.

사어(死語). 편집 등이 요즘 신세대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정스님은 강원도 산골에서 내려와 6개월동안 성북동 길상사에 머물면서 어렵고 잘 쓰이지 않는 한문과 구문을 쉬운 한글로 직접 풀어 썼다. 순박담담한 문고본에 글만 다다다닥 실은 기존 판과 달리, 각 편이 끝날 때마다 여백을 두고 이월수의 판화를 표지 삽화로 실었다.

개정판이 나오게 된 또다른 이유는 기존 문고본이 법보시용으로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책의 모양새를 좀더 화려하게 해 법보시용으로 품위있게 했다. 그러나 기본 내용은 '북한 불국사' '무소유' 등 모두 35편으로 문고본 그대로 실어 법정스님의 청빈한 무소유의 삶에 대한 진한 감동은 변함없이 느낄 수 있다.

<무소유>는 하루 밤에 다 읽는 책이 아니다. 하루에 한 권, 아니면 이틀에 한권씩 읽도록 꾸며졌다. 특히 문고본이 계속 연결된 편집이었다면 개정판은 한편의 끝에 여백을 주어 한권을 읽고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기질 수 있도록 꾸며졌다.

개정판을 손에 쥔 김삼기씨는 "육심과 집착을 버리고 출가분에게 살라는 순수하고 절저한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고 싶어 구입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서출판 법우사는 <무소유> 초판본 소장자에게 개정판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값 6천원.

'불교학 개론' 입문교리서로 재출간

황성기 박사 추모 20년 불교의 이론과 사상 및 실천의 학문적 입문서로 꾸준한 호응을 받았던 황성기 박사 <불교학개론>이 추모 20주년을 맞아 35년만에 재출간됐다.

이 책은 초심자들을 위해 복잡한 이론들을 피하고 줄거리만을 간추려 불교교리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저자의 노트를 정리하여 대학교재로 목적으로 64년 펴낸 것이다.

대중적 신령자됨을 위해 다시 펴낸 이 책은 원문을 그대로 실었고, 산스크리트어 오·탈자 및 한자 교정과 편집만 새롭게 했다. 불·법·승 3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붓다의 생애, 원시불교의 교리, 연기론, 실상론, 불교교단의 제문제, 한국불교의 현황, 한국불교 재건론 등이 수록돼 있다. 값 1만2천원.



■동국대 정각원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 1·2권

'좌선으로의 초대' '염불수행' 출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성본스님)에서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 일환으로 '좌선으로의 초대'와 '염불수행'을 내놓았다.

첫번째 권인 <좌선으로의 초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성찰을 강조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좌선, 좌선작법, 일상생활에서의 선의 실천 등 좌선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실고 있다. 또 <염불수행>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실천하고

있는 합장과 참회, 염불수행의 요지를 제시하여 올바른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엮었다.

정각원은 10월 중순경 <참선수행>을 출간하며, 매년 불교수행에 대한 내용의 시리즈 관련서를 펴낼 계획이다.

저자 성본스님은 "불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법의 근본정신을 토대로 한 실천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값 각각 1천원.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서대사
2	영가천도	우 통	효 립
3	풍경	원 성	이 레
4	나는 아직도 스님이다...	최 인 호	여 백
5	달라리마 예수를 말한다	류 시 화	나무심는사람
6	초보자를 위한 화두참선수행기	조 정 연	불 판
7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현 장 우 리	
8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정 찬 주	해들누리
9	참선수행	대 성	역시아문
10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구입문의:(02)737-0695

“독립군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독립국인가?

단체 신체화 선생님은 "한민족의 역사가 밝혀지는 날이 바로 우리가 진정 의회에서 독립하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세계 열강들의 음모와 역사 왜곡 그 가운데 조국에게 진실을 알려 주려다 억울하게 복역중인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은 이 시대의 외로운 독립군일 것입니다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서 감춰진 역사의 진실을 파내 진정한 독립 대한민국을 위한 독립 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동참하십시오!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닌 일원 징병을 조국을 위해 공개한 최초의 이영환 교수에 복역중인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 사인 99.9.12. #881 TV 일일뉴스 '힘이 관계의 그늘' 로버트 김 그는 스페인(가), 병영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쓰여진 책 『동해물과 백두산이』

국가 기밀 누설죄를 뒤집어쓴 로버트 김 사건 이 국가 기만이 첩보 위성망을 구축해 전세계를 도청한 '에설련 계획' 등 세계적인 사건과 한국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소설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만나 보십시오

지금, 국제적 사건의 음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판매 수익 중 일부는 로버트 김의 구명 운동을 위한 '구제금'으로 쓰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차세대 소설가 김형관 장편 소설 (전2권/각권 7,500원)

명상